

## 언어사용역을 고려한 영한 수량표현 번역

진실로 · 광은주  
(세종대)

### 1. 서론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을 비롯해 통사구조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명사의 수량을 표현하는 수량어구의 표현방식 및 어순에도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다. 영어에는 <수사 + 명사>와 <수사 + 수량단위 + of + 명사>의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가산명사는 주로 전자의 형태를, 불가산명사는 후자의 형태를 취하는데, 두 형태 모두 수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선행구성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어순과 수량단위 여부 등에 따라 6가지 형태의 수량어구 구성이 가능하며, 선행과 후행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가산명사는 주로 <수사 + 명사>의 단순한 형태를 취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가산명사의 경우에도 수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이다.

영어 수량어구를 한국어로 옮길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영어에서 2가지 형태로만 표현되는 수량어구가 한국어에서는 6가지 형태가 가능하므로 그 중 어느 형태를 택할 것인지 하는 점과, 둘째, 영어 가산명사

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수량단위가 한국어에서는 거의 항상 나타나므로 영어 원문에는 없는 별도의 수량단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번역 텍스트 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이 번역자 개인의 취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량어구 표현의 번역 문제를 언어사용역 면에서 고찰하여 수량어구 표현방식과 담화의 방식 및 텍스트 종류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보고, 담화의 형식과 장에 따라 적절한 수량단위가 달라짐을 살펴봄으로써 수량어구 표현의 영한 번역시 고려해야 할 기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영어와 한국어의 수량표현 유형

영어의 수량어구 표현은 매우 간단하여 다음의 2가지 형태로 나뉜다.

(1) <수사 + 명사> 유형

two buses, four children

(2) <수사 + 수량단위 + of + 명사> 유형

a. three bottles of water

b. two cartons of cigarets

수를 셀 수 있는 가산명사(countable noun)는 대부분 (1) <수사 + 명사> 유형을 사용하여 간단히 표현한다. 수를 세지 못하는 불가산명사(uncountable noun)는 그 성격상 반드시 별도의 단위명사를 사용해야 수량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2a) 처럼 ‘bottle’이라는 수량단위를 사용하여 불가산명사 ‘water’의 수량을 나타낸다. 가산명사의 경우에도 낱개로 세지 않고 묶음으로 셀 때는 (2b)의 ‘carton’처럼 별도의 단위를 사용하기도 한다. (1)과 (2)의 두 유형 모두 수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선행구성이다.

한국어의 수량어구 표현은 다소 복잡하여 크게는 선행/후행구성으로 나뉘고 다시 대략 6가지 형태로 세분된다.<sup>1)</sup>

- (2) 선행구성: <수량어 + 명사> 유형
- <수 관형사형 + 명사>
  - <수사 + 의 + 명사>
  -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 <수사 + 수량단위 + 명사>
- (3) 후행구성: <명사 + 수량어> 유형
- <명사 + 수사>
  -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

수사와 수량단위를 합쳐 ‘수량어’<sup>2)</sup>라고 부르는데, 수량어의 위치에 따라 크게 <수량어 + 명사>의 선행구성과 <명사 + 수량어>의 후행구성으로 나뉘고, 수량단위나 ‘의’의 사용여부에 따라 다시 6개 구조로 세분된다. 선행구성만 가능한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선행/후행구성이 모두 사용되는데, 특히 현대국어의 구어에서는 후행구성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며 선행구성은 드문 편이다(서정수 1994 455). 즉, 선행구성 ‘두 잔의 커피’는 문어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구어에서는 매우 어색하게 들리며 후행구성 ‘커피 두 잔’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예쁜 꽃’, ‘빨리 달리다’에서 보듯이 형용사든 부사든 반드시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위치한다. 구나 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어의 일반적인 어법이 <수식어 + 피수식어> 구조인 점을 기억해볼 때 이와 정반대 순서인 <명사(피수식어) + 수량어(수식어)> 구조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원래 ‘커피 다섯 잔’이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영어의 간섭을 받아, 즉 ‘five cups of coffee’를 직역하여 ‘다섯 잔의 커피’

1) 일반적으로 수량어구는 수식을 받는 명사(구)와 함께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이 따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맥상 쉽게 복원할 수 있는 명사이기에 생략이 가능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생략된 형태이므로 본고에서는 수량어구 표현의 기본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 {나이/0} 서른이 다 되도록 이론 게 하나도 없다.

2) 수량 표현 관계 명사의 호칭에 대해서는 ‘수량사(구)’, ‘수량어’, ‘양화사’, ‘분류사’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서정수(1994 455)를 따라 ‘수량어’란 용어를 사용한다.

라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쓰이게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한효석 2000 36, 우형식 1998 62). 하지만 채완(1982, 1983)은 한국어의 수량표현이 본디 <수량어 + 명사> 유형이 우세하였던 것인데 현대어에 와서 <명사 + 수량어>의 유형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한국어 수사 체계에 ‘한, 두, 서(세, 석), 너(네, 녀), 닷, 엇, 스무’라는 관형사형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수량어 + 명사> 어순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한자어와 영어가 도입되기 이전에 기록된 문헌에서 이미 <수량어 + 명사>의 선행구성이 나타났다(채완 1982)는 점에서 채완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본고에서는 동시대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 한정하여 논의하기에 선행/후행구성의 기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

수량어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선행구성에는 4가지 유형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구성의 첫째 유형 <수 관형사형 + 명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일부 특정 명사의 경우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 (4) a. 다섯 마을, 여섯 학교, 여덟 나라  
b. 두 남자, 세 학생, 세 책상

(4a)의 “마을”, “학교”, “나라”처럼 단체나 기관을 지시하는 명사는 마땅한 수량 단위명사가 발달되지 않아 위의 예처럼 수사와 명사가 직접 결합한다. (4b)의 “남자”, “학생”, “책상” 등도 수사 바로 뒤에 나올 수 있으나 모든 명사가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 \*{세 고기, 다섯 산소, 여섯 포도주}  
(6) (?) {두 소, 다섯 돼지, 여섯 가방, 일곱 바지}  
(7) (??) {열일곱 남자, 스무 학생, 서른 책상}

(5)처럼 수를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의 경우에는 수량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수량단위명사를 필요로 한다. 가산명사라 해도 단체·기관 명사나 일부 특정 단어 외에는 (6)에서 보듯이 수사 뒤에 바로 명사가 결합되면 매우 어색하다. 또한 비교적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4b)의 “남자”, “학생”, “책상”의 경우에도 그

수효가 커지면 (7)에서 보듯이 매우 어색하다. 따라서 <수 관형사형 + 명사> 유형은 단체·기관 명사와 극히 일부 명사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행구성의 둘째 유형 <수사 + 의 + 명사> 구조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 (8) \*{둘의 남자, 다섯의 학생, 셋의 책상}  
 (9) a. 하나의 씨앗, 하나의 목표, 둘의 화해  
 b. (??){셋의 씨앗, 여섯의 목표, 일곱의 화해}

(4b)의 <수 관형사형 + 명사> 구조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타난 “남자”, “학생”, “책상”도 (8)에서 보듯이 <수사 + 의 + 명사> 구조로는 결합할 수 없다. 이런 구조는 (9a)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그나마 사용되며, (9b)처럼 수사만 바뀌어도 매우 어색해진다는 점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선행구성의 셋째 유형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구조와, 넷째 유형 <수사 + 수량단위 + 명사> 구조는 별도의 단위명사를 사용한다.

- (10) 네 명의 젊은이, 85개의 뼈  
 (11) 서너 개 방, 다섯 개 회사, (??)네 명 젊은이

(10)의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유형은 앞서 살펴본 <수 관형사형 + 명사>와 <수사 + 의 + 명사> 형태에 비해 좀더 폭넓게, 자주 사용되는 편이다. 이 유형에서 ‘의’만 뺀 형태가 (11)의 <수사 + 수량단위 + 명사> 유형이다. 이 때 모든 경우에 ‘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네 명의 젊은이”는 자연스럽게 “네 명 젊은이”는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반면에 “서너 개 방”, “다섯 개 회사”에 ‘의’를 삽입한 “서너 개의 방”, “다섯 개의 회사”는 무척 자연스러워 ‘의’가 포함된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유형이 기본 형태임을 짐작케 한다.

수량어가 명사 뒤에 위치하는 후행구성은 수량단위명사의 사용 여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행구성의 첫째 유형 <명사 + 수사> 구조는 수량어가 명사 뒤에 위치하되 수량단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명사 뒤에 수사가 직접 결합하는 형태이다. 단위명사가 없으므로 반드시 단위를 필요로 하는 불가산명사의 수량표현에는 이 형태를 사용할 수 없다.<sup>3)</sup> 또한 가산명사의 경우에도 그 수효가 많아지면 어색해진다.

- (12) a. 마당엔 장정 넷이 서 있었다.  
b. 그는 지우개 하나를 빌렸다.

- (13) a. (??)마당엔 장정 마흔이 서 있었다.  
b. \*그는 지우개 열을 빌렸다.<sup>4)</sup>

(12a)의 “장정 넷”이나 (12b)의 “지우개 하나”는 가산명사이고 그 수효가 적어 비교적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에 따른 것이고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다(서정수 1994 418). 수효가 커지면 (13a)처럼 사람명사인 경우에도 매우 어색하고, (13b)처럼 사람이 아닌 명사의 경우에는 한층 더 어색하다. 일상 쓰는 말일 경우에는 수량단위 없이도 통용되지만 수효가 커지면 그 단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459).

후행구성의 둘째 유형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 구조는 수량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사실 위 예문 (12)의 경우에도 수량단위를 함께 밝혀주면 더 자연스럽다.

- (12)' a. 마당엔 장정 네 명이 서 있었다.  
b. 그는 지우개 한 개를 빌렸다.

수량단위를 사용한 (12)'가 단위 없이 수사만으로 표시한 (12)보다 더 자연스럽고 명료한 느낌이 든다. 특히 불가산명사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단위명

3) 단, ‘맥주 하나 주세요’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은 상황에 따라 ‘병’ 등의 수량단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도 ‘맥주 한 잔’, ‘맥주 한 병’, ‘맥주 한 캔’, ‘맥주 한 상자’ 중 어느 단위를 가리키는지 모호하다면 수량단위를 밝혀주어야 한다.  
4) 논의의 편의상 이후로 문장 내의 수량어구 표현은 밑줄로 표시한다.

사를 사용하는 것이 수량표현의 유일한 방법이다.

- (13) a. \*삼촌이 쌀 하나를 사가지고 오셨다.  
 b. 삼촌이 쌀 한 말을 사가지고 오셨다.

“쌀”처럼 수를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 (13a)와 (13b)에서 보듯이 반드시 수량단위명사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가능한 수량어구 표현을 살펴본 결과 명사의 종류에 따라 6가지 정도의 구조가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수량단위가 있는 표현이 수량단위 없이 쓰는 표현에 비해 압도적으로 선호되고(채완 1983: 24), 수량단위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 쓰임새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표현은 수량단위가 포함된 선행구성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유형과, 후행구성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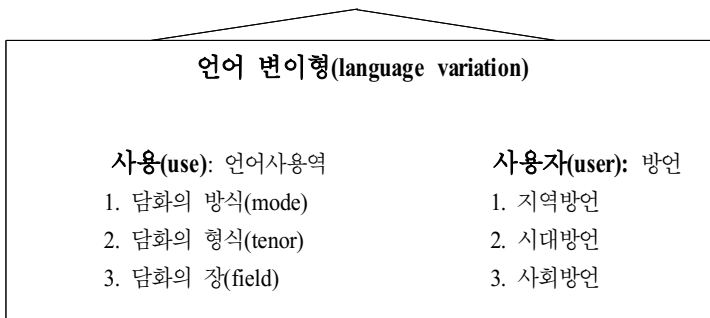
영어 수량어구 표현과 한국어 수량어구 표현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영어에는 수량어구 표현방식이 2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어에는 대략 6개 정도가 존재한다. 둘째, 영어에는 수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선행구성 유형만 존재하는 반면 한국어에는 선행구성과 후행구성 둘 다 존재한다. 셋째, 영어에서 불가산명사는 반드시 단위명사가 필요하되, 가산명사는 별도의 묶음단위를 상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위명사 없이 사용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불가산명사는 물론이고, 가산명사도 수량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수량어구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영한 번역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영어는 수량표현 유형이 2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어는 6개 정도로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 6개 유형 중에서 수량단위를 사용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므로 이 기본유형만 고려한다 해도 하나의 영어 표현에 대해 적어도 선행구성과 후행구성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한 셈이고, 따라서 영한 번역자는 이 두 구조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번역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혹은 번역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가 본고의 다룰 첫 번째 논제이다. 수량어구 표현의 영한 번역시 주

의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적절한 수량단위명사의 선택 문제이다. 불가산명사의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수량단위 사용이 필수이므로 번역 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산명사의 경우에는 영어 원문에 수량단위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한국어로 옮길 시에는 적절한 단위명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번역자의 재량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특히 일부 명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명사에 대해 2개 이상의 수량단위가 존재하므로 번역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때 번역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지가 본고의 다룬 두 번째 논제이다. 본고에서는 언어사용역(register)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논제인 선행/후행구성의 선택 문제는 언어사용역 중 담화 방식(mode)과 텍스트 종류 차원에서, 두 번째 논제인 적절한 수량단위 선택 문제는 언어사용역 중 담화 형식(tenor)과 장(field)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3. 언어사용역과 수량어구 표현방식의 연관성

언어는 어느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즉 사용자와 사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변이형을 보인다.



[그림1] 언어 사용자/사용에 따른 언어 변이형

언어는 사용자의 지역, 시대,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언, 즉 서로 다른 형태의 변이형을 보일 뿐 아니라 동일 사용자의 경우에도 그 사용자가 처한 상황, 즉 언어사용역(register)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변이형을 보인다. 언

어사용역은 담화의 방식, 형식, 장으로 구분된다. 언어사용자가 이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해당 상황에 따라 문법구조와 어휘를 선택하면 언중은 관습(convention)에 비추어 보아 발화의 적절성(appropriateness) 여부를 판단한다(Halliday et al. 1964).

언어사용역 중 담화의 방식(mode)은 연설, 강의, 업무용 서신 등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과 전달 매체를 가리킨다. 전달 매체는 일차적으로 구어와 문어로 구분되고, 구어의 경우 즉흥성 여부 등에 따라, 문어의 경우 음성언어로 발화될 것을 전제로 삼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된다(Gregory and Carroll 1978 47 참조). 소설 대화 부분을 너무 문어체적으로 번역한다든지, 반대로 격식성이 높은 법조문을 너무 구어체적으로 번역하면 어색한 이유를 바로 해당 텍스트의 담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담화의 형식(tenor)은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에 관련된다. 주로 격식 정도(formality)에 따라 ‘공손한 표현-일상 표현-친밀한 표현’ 등으로 구분된다(Hatim and Mason 1990 50). 가령 동일 화자라도 학교 선생님께는 공손한 표현을, 친한 친구에게는 친밀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영어에 비해 한국어가 화자-청자의 관계에 따른 존대법이 잘 발달되었다는 점에서 영한 번역에서 담화 형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담화의 장(field)은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화자가 직접적인 발화 행동 외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 언어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축구 경기’라는 동일 주제에 대해서도 화자가 직접 축구 선수로 뛸 때는 동료 선수들에게 쉽게, 빨리 전달되도록 평소 훈련 때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짧은 명령문 구조를 주로 선택하고, 해설자 입장일 때는 정확한 전문용어들과 서술문 구조를 주로 선택할 것이다.<sup>5)</sup>

이제 수량어구 표현의 영한 번역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언

5) 담화의 방식, 형식, 장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어서 어느 정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가령 회장 선거 유세를 위한 연설문은 유권자 설득이 주목적이므로(담화의 장)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해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담화의 형식), 글을 매개체로 하되 말로 전달할 것을(담화의 방식)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어사용역 관점을 적용하여 담화의 방식 차원에서 선행/후행구성을, 담화의 형식과 장 차원에서 수량단위 선택을 차례대로 논하기로 한다.

### 3.1 담화 방식(mode)과 선행/후행구성

한국어 수량어구 표현 방식에는 6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표현 방식은 수량단위가 포함된 3개 유형, 즉 수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선행구성인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유형과 <수사 + 수량단위 + 명사> 유형, 그리고 수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는 후행구성인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 유형이다. 예컨대 영어표현 ‘two tables’에 대한 한국어 대응표현은 선행구성 ‘두 개의 탁자’, ‘두 개 탁자’와 후행구성 ‘탁자 두 개’의 3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번역자는 이 3가지 표현 중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때 번역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번역자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

한국어 수량어구 표현 방식에 관한 통시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전에는 본래 선행구성이 우세하였으나 현대어에 와서 후행구성으로 자리가 바뀌었다고 한다(채완 1982). 공시적인 연구에 따르면 현대국어의 구어는 후행구성이 특징이며, 선행구성은 주로 문어에서 나타난다(채완 1983 33, 서정수 1994 455). 이처럼 담화의 방식 중 전달매체(문어/구어)에 따른 선행/후행구성 선호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담화 방식 중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과 선행/후행구성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sup>6)</sup>

통역과 달리 번역은 대체로 문어텍스트를 대상으로 작업하므로<sup>7)</sup> 단순히 구어/문어텍스트의 일반적인 경향만으로는 번역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같은 문어텍스트라도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텍스트 종류가 달라지며, 서로 다른 종류의 텍스트는 선호되는 통사구조 및 어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어텍스트 내에서도 텍스트 종류에 따라 수량어구의 선행/후행구성에 대한 선호도 및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어 텍스트를 종류별로 선

6) 한국어 수량화 구성의 분포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텍스트의 예를 추출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우형식 1998), 분석 대상 자료가 장편소설에 한정되어 있어 텍스트 종류에 따른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7) 영상번역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개 스크립트를 병행하여 작업한다.

정하여 실례를 통해 텍스트 종류와 수량어구 구성방식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기로 한다.

텍스트 종류는 라이스(Reiss 1977/89)의 구분에 따르면 크게 정보적(informative), 표현적(expressive), 호소적(operative) 텍스트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정보적 텍스트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며 신문, 보고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표현적 텍스트는 저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예술성의 표현을 주목적으로 하며 문학작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호소적 텍스트는 독자를 설득하여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광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호소적 텍스트는 텍스트 내용 자체보다는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중요하므로 변안(adaptation)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원문의 수량어구 표현이 번역문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는 부적합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현적 텍스트의 분석을 위해서는 중·단편소설 20편을 선정하였다. 시는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특이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므로 분석 대상에 부적합하고, 장편소설 한 두권은 저자 특유의 성향이 수량표현의 수식구조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표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이 사용되면서 개인 특유의 선호도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삼기 위해 각각 저자가 다른 20편의 중·단편 소설을 선정하였다.<sup>8)</sup>

정보적 텍스트로는 신문, TV뉴스 스크립트, 실험논문의 세 종류를 대상으로 각각 100개 이상의 예문이 포함된 분량만큼의 자료를 선정하였다.<sup>9)</sup> 동일 범

8) 일정 수준 이상의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위해 3대 문학상인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중의 하나를 받은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9) 분석대상이 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과학 실험논문 6편: 무갑상선 쥐에서 증식성 반흔의 새로운 실험모델/ 신뢰성 실험에서의 와이블 희귀모형과 대수정규 희귀모형의 실험 자료 분석/ 실험동물 II-실험동물의 사육관리/ 국산 인공심장판막의 동물 실험/ 실험기구의 변화가 복사에너지 실험수업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탐구실험 교재 및 실험 수행평가 준거 개발
- (2) 신문: 한국일보 2009년 1월 13/ 15/ 23일자 기사 전체
- (3) TV뉴스 스크립트: MBC 뉴스데스크 2009년 1월 9/ 11/ 13/ 14/ 15/ 17/ 20/ 21

주에 속하는데도 굳이 세 종류로 나눠 선정한 것은 신문, TV뉴스 스크립트, 실험논문이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구체적인 성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신문은 철저히 문자로만 전달되는 문어텍스트인데 반해, TV뉴스 스크립트는 아나운서와 기자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문어텍스트이다. 따라서 같은 문어텍스트라도 신문은 문어적 성격이 강하고 TV뉴스 스크립트는 문어적 성격에 구어적 측면도 다소 있다고 보인다. 과학 실험논문은 논문 저자의 주관적 요소가 철저히 배제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이 그 어느 텍스트보다 중요하므로 수동태 구조와 한자어 등이 자주 사용되는 등 격식성(formality)이 매우 높은 텍스트이다. 또한 일상어(general language)가 사용되는 신문이나 TV뉴스에 비해 전문용어 등의 특수어(special language)가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과학 실험논문은 문어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Snell-Hornby 1988/1995 31-33 참조).

분석 예는 수량단위를 포함한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구조로는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유형과, ‘의’가 생략된 <수사 + 수량단위 + 명사>를 선정하였고, 후행구조로는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 유형을 선정하였다. 실제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선행구성

- a. 10여명의 동네 아이들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 b. 서른 두 장 유리창 (<수사 + 수량단위 + 명사>)

(15) 후행구성

현직교사 4인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

일자 방송 스크립트 전체

- (4) 소설 20편: 백의민족/ 초식/ 바라암/ 성흔/ 사형/ 이별의 방식/ 서울의 달빛 0장/  
두고 온 사람/ 잔인한 도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저녁의 게임/ 우리들의  
날개/ 산행/ 관계/ 아테네 가는 배/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폭력요법/  
친구/ 흐르는 북/ 어제 울린 총소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원론적인 설명을 위한 예문 (21), (23)과, 출처가 다른 (26), (28)외에, 이후로 제시되  
는 모든 예는 위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 (16)a. 1200명의 해외 바이어가 몰렸습니다.  
b. 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14a), (14b)는 선행구성의 예이고, (15)는 후행구성의 예이다. 예를 선정한 기준에는 수량단위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와 더불어 선행구성과 후행구성이 서로 교체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16a) 문장은 밑줄 친 선행구성을 후행구성으로 교체해 “해외 바이어 1200명이 몰렸습니다”로 바뀌도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16b)는 밑줄 친 후행구성을 선행구성으로 교체해 “10명의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으로 바꾸면 다소 부자연스럽고, 통사구조를 달리해 “10명의 의원만 동의하면” 식으로 바뀌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텍스트 종류와 선행/후행구성 간의 연관성이 논의 대상이므로 수량어구 구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추출된 수량어구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텍스트<br>예 | 정보적텍스트 |             |    |             |      |             | 표현적텍스트 |             |
|----------|--------|-------------|----|-------------|------|-------------|--------|-------------|
|          | 실험논문   |             | 신문 |             | TV뉴스 |             | 소설     |             |
| 구성       | 선행     | 후행          | 선행 | 후행          | 선행   | 후행          | 선행     | 후행          |
| 개수       | 67     | 49          | 92 | 94          | 50   | 69          | 46     | 78          |
| 비율       | 1      | <b>0.73</b> | 1  | <b>1.02</b> | 1    | <b>1.38</b> | 1      | <b>1.69</b> |

[표1] 텍스트 종류에 따른 선행/후행구성

실험논문은 총 116개의 예에서 선행, 후행구성이 각각 67개, 49개로써 약 1 : 0.7의 비율로 선행이 후행보다 선호된다. 신문은 총 186개의 예에서 선행, 후행구성이 각각 92개, 94개로 약 1 : 1의 비율을 보여 선행과 후행이 비슷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TV뉴스 스크립트는 총 119개의 예 중에서 선행, 후행구성이 각각 50개, 69개로써 약 1 : 1.4의 비율로 후행이 선호된다. 소설은 총 124개의 예 중에서 선행, 후행구성이 각각 46개, 78개로써 1 : 1.7의 비율로 후행이 선호된다. 텍스트 종류에 따른 선행/후행구성의 비율만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림2] 텍스트 종류별 선행/후행구성 비율

과학 실험논문, 신문, TV뉴스 스크립트, 소설텍스트에서 추출한 예를 분석한 결과, 선행구성을 기준으로 후행구성이 각각 0.7, 1, 1.4, 1.7의 비율로 나타나 ‘실험논문 < 신문 < TV뉴스 < 소설’ 순으로 후행구성의 출현빈도가 높았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순서는 텍스트의 문어/구어적 성향의 정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앞서 분석한 대로 실험논문은 문자로 전달되도록 작성되었고 다루는 내용도 일상과 거리가 먼 전문적인 것이므로 문어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텍스트이다. 신문은 문자로 전달되도록 작성되었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따라서 실험논문에 비해 문어적인 성향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TV뉴스 스크립트의 경우는 신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도 후행구성에 대한 선호가 더 크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TV뉴스 기사는 일단 문자 형태로 기록되되 실제 시청자에게는 음성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기사 작성 시에도 음성 발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구어적인 특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은 허구의 상황과 인물이 등장하되 대개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실험논문, 신문이나 TV뉴스 같은 정보텍스트에 비해 구어적인 성격이 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문어적인 성향이 강한 텍스트일수록 선행구성이 많이 사용되고, 구어적인 성향이 강한 텍스트일수록 후행구성이 많이 사용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선행구성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실험논문은 수량표현 구성방식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다음은 실험논문에서 추출한 예이다.

- (17) 나머지 mouse 중에서 13마리의 송과 19마리의 우이 한 개의 등우리에 근거하고 남은 8마리의 송은 우 없이 한 등우리에 들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linear형의 순위는 보이지 않았으나 19마리의 우와 같이 준거하는 13마리 송 사이에서는 순위의 형성을 보였다.
- (18) a. ... 4명의 관찰자가 모두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흔으로 진단을 하였던 켈로이드 22부위 및 비후성 반흔 64부위 등 총 86부위에서...  
 b. 통제집단의 경우 여학생 40명(88%), 남학생 38명(84%)이고  
 c. 준비물: 스티로폼 컵 5개, 온도계 2개, 피펫 2개...

실험논문에서 실험 과정이나 내용을 기술할 때는 주로 (17)에서 보듯이 수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선행구성을 사용하였다. 후행구성의 유형은 (18a)~(18c)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18a)처럼 내용 기술에 사용된 경우는 후행구성 예 전체 49개 중 10개로 20%에 그쳤고, 나머지 80%는 전부 (18b)나 (18c)처럼 실험 결과에 나타난 수치를 나열하거나 재료를 나열하는데 사용되었다.<sup>10)</sup> 만약 (18b), (18c)와 같은 목록의 예를 배제하고 내용 기술에 사용된 예만 따진다면 선행구성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과학 실험논문에서 사용되는 수량표현은 전체적으로 선행구성이 선호되며, 수치 목록이나 재료 목록을 나열하는 데는 후행구성이 사용되지만 내용 기술은 선행구성이 매우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후행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소설은 그 자체 내에서도 문어와 구어 간의 선행/후행구성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드러난다.

- (19) a. 손님은 이내 새 한 마리를 사서 숲으로 날려 보내고 나선 가게를 떠나갔다.  
 b. 사내는 그 젊은이 앞에 16개의 동전을 푼박푼박 정확히 세어 건네 주고 나서 일방적으로 혼자 흥정을 끝내 버렸다.

10) 이런 현상은 “명사가 수사에 앞서는 수량사구의 전형적인 용법은 ‘목록’”이라는 채완(1983: 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 (20) a. “어이, 한병태. 잔소리 말고 물 한 컵 떠 와.”  
 b. “... 그리스 역사란 간추리면 간단하지.... 2백여 개의 도시 국가가  
 번영을 누렸어 ....”

(19)는 지문에 나타난 수량표현의 예로 (a)는 후행구성, (b)는 선행구성의 구조이다. 지문에서도 선행과 후행의 예가 각각 45개와 60개로 후행구성이 선호된다. 그러나 대화에서는 후행구성에 대한 선호가 거의 압도적이다. 대화에 나타난 수량어구 예는 모두 19개였는데 그 중 17개가 (20a)처럼 후행구성이다. (20b)와 같은 선행구성은 단 2개에 그쳤다. 지문과 대화가 문어와 구어의 대체적인 성향을 띤다고 볼 때<sup>11)</sup> 구어에서 후행구성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텍스트 종류와 선행/후행구성의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과학 실험 논문, 신문, TV뉴스 스크립트, 소설을 대상으로 각각 자료를 선정하여 예를 추출한 결과, 실험논문은 선행구성이 선호되고, 신문은 선행과 후행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TV뉴스 스크립트와 소설은 후행구성이 선호되었고, 특히 소설의 후행구성 선호도가 더욱 두드러졌다. 선택한 4종의 텍스트를 언어사용역 중 담화 방식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과학 실험논문과 신문은 말하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좀더 엄격한 의미의 문어텍스트이고, TV뉴스 스크립트는 말로 전달되도록 작성된 문어텍스트이므로 실험논문과 신문에 비해 구어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 소설은 지문과 대화가 섞여 있으므로 다른 텍스트에 비해 구어적인 색채가 좀더 짙다. 선행구성에 대한 후행구성의 비율이 ‘실험논문 < 신문 < TV뉴스 < 소설’ 순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문어적인 성격이 강한 텍스트일수록 선행구성이, 구어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후행구성이 선호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독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질 좋은 번역텍스트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번역자의

11) 코퍼스 자료 분석 결과, 실시간 상황에서 산출된 텍스트(방송 대화, 전화 대화, 일상 대화, 중계방송)는 청자 중심, 혹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중요하게 관련되는 반면, 대화를 모형화한 텍스트(연극, 드라마, 소설, 만화 등의 대화)는 화자 쪽에 좀더 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두 종류의 텍스트 모두 화자와 청자가 실시간에 교류하는 전형적 구어적 상황을 반영한다(강범모 외 2000 76)는 점에서 소설의 대화는 구어로, 지문은 문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문장 실력뿐만 아니라 텍스트 종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독자는 그동안 접했던 텍스트들에 근거해 새로운 텍스트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따라서 번역자는 독자의 기대에 맞춰 원문의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가령 영어 신문기사에는 관용어 등의 비격식적인 표현도 자주 사용되지만 한국어 기사는 격식이 무척 높은 편이다. 따라서 영어의 관용어를 격식 있는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한국어의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가는 독자들에게 ‘신문기사 답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 쉽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수량어구 표현의 번역에도 적용된다. 선행구성만 존재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선행/후행구성이 모두 존재하며, 둘 중 어느 구성을 선호하는지가 텍스트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번역자는 해당 텍스트 종류에서 선호되는 수량표현을 전략적으로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 번역가에게 수량어구 표현 번역의 기준이 될 만한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어에서는 후행구성이 주로 사용되며, 선행구성은 문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2. 과학 실험논문에서 내용을 기술할 때는 선행구성이 주로 사용된다. 다만 실험재료를 나열하거나 실험에서 도출된 수치를 나열할 때는 대부분 후행구성이 사용된다.
3. 신문은 선행과 후행이 고루 사용된다.
4. TV뉴스 스크립트는 신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구어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가미되므로 후행이 약간 더 선호된다.
5. 소설은 전반적으로 후행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다. 지문에서도 후행이 더 자주 사용되지만 대화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후행이 선호된다.
6. 모든 종류의 텍스트에서 수치나 수량을 단순 나열할 때는 후행구성이 사용된다.

### 3.2 담화의 형식(*tenor*) 및 장(*field*)과 수량단위

수량표현 번역에서 번역자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적절한 수량단위

명사의 선택 문제이다. 영어에서는 수량단위가 대개 불가산명사를 세기 위해 사용되고 가산명사는 ‘two trees’처럼 <수사 + 명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불가산명사는 물론이고 가산명사도 수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two trees’라는 표현을 번역하려면 영어 원문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나무’에 어울리는 적절한 단위명사를 찾아 표기 해주어야 한다. 이 때 명사에 따라 단위명사가 두 개 이상 존재하기도 하는데, 가령 ‘나무’의 경우에는 ‘포기, 그루, 주’ 등으로 셀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수량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번역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언어사용역 중 담화의 형식과 장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수량단위명사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도량적인(mensural) 것과 부류적인(sortal) 것으로 구분된다(Lyons 1977 463).<sup>12)</sup> ‘도량단위’는 명사를 수량화(quantify)해주고, ‘부류단위’는 명사를 특질화(qualify)해준다(Denny 1976 122). 가령 ‘우유 1리터’에서 ‘리터’는 ‘도량단위’이고, ‘학생 두 명’에서 ‘명’은 명사를 세는 단위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의미자질, 즉 ‘학생’이 ‘사람’이라는 부류에 속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부류단위’이다. 채완(1990 170)의 지적대로 수량단위명사가 ‘도량단위’와 ‘부류단위’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단순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번역에 초점을 맞추는 본 논문에서는 이 정도의 구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도량단위’는 사실 모든 언어에 발달되어 있고 번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다만 언어마다 도량형이 다르므로 영어의 ‘pound’를 ‘파운드’로 음차하여 원어 도량형 단위를 그래도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근’이나 ‘그램’ 등으로 옮길지의 문제는 생각해볼 만하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규격화, 표준화 경향에 맞춰 ‘그램’ 단위로 통일하여 사용하

12) 수량의 단위를 표현해주는 용어는 논자에 따라 ‘수량사’(이익섭 1973 46), ‘셈술말’(김영희 1981, 1984) 등으로 각기 달리 사용되었다. 채완(1983)은 ‘분류사(classifi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사의 종류를 ‘도량분류사’와 ‘부류분류사’로 구분하였으나, 서정수(1994 455-456)는 첫째, 단위명사가 분류 기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영어의 ‘classifier’란 용어는 형태론에서 의미 부류를 가리키는 형태소(예: “-ly”는 부사 분류사)를 일컫는 말로 쓰이므로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당한 비판이라 생각되어 이 논문에서는 서정수의 입장을 따라 ‘수량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고 있으니 선택의 폭이 좁은 만큼 번역자의 고민도 덜하리라 생각된다.

‘부류단위’는 영어를 비롯한 인공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여러 언어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아시아 언어에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한국어는 부류명사의 수가 풍부하고 그 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점점 단순화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바늘-쌈’, ‘복어-쾌’ 등 하나 또는 서너 개 미만의 명사와만 호응하는 부류단위가 대부분이며, 재료, 모양, 밀도, 크기 등에 따라 여러 명사가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부류단위’는 영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한국어에는 잘 발달되어 있는 만큼 번역자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한국어에서 하나의 명사가 여러 개의 ‘부류단위’와 결합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학생 두 명’의 예를 통해 부류단위는 해당 명사의 수효를 알려주는 기능 외에 그 명사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의미자질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부류단위명사는 그 의미자질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은 [+동물]의 의미자질을 가진 ‘마리’와는 결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채’와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칸’, ‘동’과도 결합할 수 있다. ‘채’가 중립적인 표현이라면 ‘동’은 규모가 큰 집에, ‘칸’은 규모가 작은 집에 사용하는 단위이다. 그러나 규모의 크고 작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며 화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단위명사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21) 동생: 그래도 형님은 집 한 채라도 있지요. 저는 정말 죽겠습니다.

형: 흥! 달랑 집 한 칸 가지고 뭘 그래.

같은 집에 대해서도 동생과 형이 서로 다른 수량단위를 택함으로써 그 집에 대한 평가 및 태도가 다름을 드러낸다. 이 때 동생과 형이 수량단위를 서로 바꿔 말한다 해도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전달하는 뉘앙스와 태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결국 명사와 수량단위명사의 선택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수용성의 정도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우형식 1998: 60). 즉, 단위명사의 선택은 의미론적 제약이 있는 것도 사

실이지만 화용론적 제약도 크게 작용함이 분명해 보인다(채완 1983 172 참고).

명사와 수량단위의 결합이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려면 그 명사가 사용되는 맥락상황에 어울려야 한다. 맥락상황은 언어사용역 중 담화의 형식과 장에 연관된다.

담화의 형식은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한국어의 경어법(honorification)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국어는 대우하는 대상에 따라 주체 경어법, 객체경어법, 청자경어법이 잘 발달하여 발화에 관련된 인물들, 즉 화자, 청자, 제 3자의 상호관계가 잘 드러난다. 사람을 세는 수량단위명사 역시 높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2) ... 네 명의 동생들이 그 여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었다.

(23) 이번엔 선생님 두 분이 새로 부임했다.

(24) “ ...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서 한꺼번에 빨갱이 열 놈을 생포하고...”

(22)의 “동생”이란 명사에 대해서는 “명”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23)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분”이라는 높임 표현을, (24)의 “빨갱이”에 대해서는 “놈”이라는 낮춤 표현을 수량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동생’이 단순히 가족관계 정보만을 전달하는데 반해, ‘선생님’이란 표현은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데다 ‘님’이란 높임 의존명사까지 붙임으로써 그 자체로 [높임] 자질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분”이라는 높임 수량단위가 잘 어울린다. “빨갱이”는 북한 사람, 특히 북한 군인이나 간첩을 속되게 일컫는 표현으로 그 자체로 [아주낮춤]의 자질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역시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사용하는 “놈”이 수량단위로 잘 어울린다. 이때 우리가 어울린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예문 (23)의 경우에도 “선생(님) 두 명”이란 표현도 가능하고,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선생 두 놈”이 어울릴 수도 있다.

(25) “이 노인이 이북서 피난을 때 이야긴데... 부식들을 찰칵찰칵 켜고 있으려니까, 키가 썩썩한 미군 한놈이 다가오더래요....”

(26) 실제로 지난해에는 아프간 주둔 미군 151명이 사망, 침공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하기도 했다.<sup>13)</sup>

(25)는 소설에서 발췌한 예로 한국전쟁 당시 한 노인이 미군 병사를 만났을 때 겪은 일에 관한 내용이다. 외국인은 무조건 비하해서 부르던 시절인 까닭에 “미군”에 대해 “놈”이란 [아주낮춤] 표현을 통해 수량을 나타냈다. (26)은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예로 미군 사망자수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 미군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 등의 경어 표현이 필요 없으므로 중립적 단어 “명”을 통해 수량을 나타냈다.<sup>14)</sup>

수량단위의 적절성은 담화의 장과도 연관된다. 담화의 장이란 ‘무슨 일이 진행 중인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동일 주제에 대해서도 화자가 참여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언어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그림’이라는 명사는 ‘장’, ‘점’, ‘폭’을 수량단위로 사용하는데,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단위가 달라진다.

(27) 나는 미술 실기 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이 한 장을 그리는 동안 두 장을 그려야 했다. 그림 솜씨가 시원찮은 석대를 위해서였는데, 그 바람에 <우리들의 솜씨> 난에는 종종 내 그림 두 장이 석대의 이름과 내 이름을 달고 나란히 붙어 있곤 했다.

(28) 검찰은 또 ‘학동마을’을 포함해 총 5점의 그림이 당시 국세청으로 전달됐다는 의혹과...<sup>15)</sup>

동일 명사 “그림”에 대해 (27)은 “장”을, (28)은 “점”을 사용하였다. (27)에서 보듯이 초등학교생이 그린 그림은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기 힘들기에 “장”이란 단위명사가 쓰였다. 그러나 (28)에서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되는 그림이기에

13) 출처: <http://news.net.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479251>

14) 뉴스 기사는 객관적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높임]이나 [낮춤]이 반영되는 ‘분’, ‘놈’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을 사용한다. 따라서 수량단위 선택은 담화의 형식뿐만 아니라 담화의 방식, 장과도 모두 연관된다. 언어 사용역의 세 가지 차원, 즉 담화 방식, 형식, 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5)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83003>

“점”이란 단위명사가 쓰였다. ‘장’과 ‘점’의 이러한 차이는 ‘사진’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증명사진’ 등 일반 사진은 ‘장’으로, 전시회에 걸리는 작품 사진은 ‘점’이란 수량단위를 사용해야 자연스럽다. 단위명사 ‘점’은 의복을 셀 때도 사용되는데, ‘옷’은 대개 ‘벌’로 세고 ‘의류’는 ‘점’으로 센다는 점도 흥미롭다.

담화 장에 따라 수량단위가 달라지는 또 하나의 좋은 예는 경매 사이트에 서 발견된다. 다음은 실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실린 경매 목록의 일부이다.

(27) 아파트(23건), 주택(3건), 상가(1건), 공장(4건), 숙박시설(1건), 전(5건), 답(2건), 종교시설(1건), 기타(1건), 승용자동차(3건), 중장비(1건), 덤프 트럭(3건)

아파트, 주택 등의 건물은 대개 ‘채’로 세고 차량은 ‘대’로 세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매 사이트에서는 건물과 차량 간의 의미자질의 차이나 부류 차이에는 관심이 없고 해당 ‘물건’의 매매에 주된 관심이 있다. 따라서 경매장에 나온 물건의 ‘건수’에 초점을 맞춰 수량을 세고, 따라서 수량단위를 ‘건’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량단위 선택에 담화의 형식과 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량단위 중에서도 부류단위는 수량 표시와 함께 명사의 특질을 보여주는 기능도 겸한다. 영어는 부류단위 명사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고 수량단위의 사용빈도도 높지 않은 반면, 한국어는 부류단위 명사가 잘 발달하였고 수량단위가 거의 항상 사용되는 편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영어 원문에 수량단위가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 특히 언어사용역 중 담화의 장과 형식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명사를 선택하여 함께 표시해주어야 한다.

## 5. 결론

영어와 한국어는 수량어구 표현방식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영어의 경우 가산명사의 수량은 주로 <수사 + 명사> 형태로, 불가산명사는 <수사 + 수량단위

+ of + 명사> 형태로 표시한다. 단 2가지 형태만 존재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수 관형사형 + 명사>, <수사 + 의 + 명사>,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수사 + 수량단위 + 명사>, <명사 + 수사>,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의 6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한국어는 수량단위를 포함한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은 <수사 + 수량단위 + (의) + 명사> 유형과 <명사 + 수 관형사형 + 수량단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 간의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영한 번역 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수량단위를 포함한 기본 형태를 사용한다 해도 선행/후행구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과, 둘째, 영어 가산명사는 수량단위 없이 수사와 명사가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자연스러운 한국어 수량어구 표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량단위명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번역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 및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기준을 언어사용역 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선행구성과 후행구성 간의 선택 기준은 언어사용역 중 담화의 방식(mode) 차원에서 논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구어는 후행구성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문어에서는 선행과 후행구성이 모두 사용된다는 대략적인 성향만 언급되었다. 그러나 번역은 주로 문어텍스트를 작업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번역에 활용하려면 문어텍스트를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보적 텍스트에서 3종(과학 실험논문, 신문, TV방송 스크립트), 표현적 텍스트에서 1종(중·단편 소설)을 골라 수량단위명사가 사용된 표현을 추출,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종류와 선행/후행구성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실험논문은 선행이 선호되었고, 신문은 선행과 후행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TV뉴스 스크립트는 후행이 선호되었고, 소설은 후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실험논문 < 신문 < TV뉴스 < 소설’ 순으로 후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논문이 문어적 성격이 가장 강하고 신문, TV뉴스, 소설 쪽으로 갈수록 구어적 성격이 강해져간다는 점에서 구어적 성격이 강한 텍스트일수록 후행구성이 선호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소설의 대화 부분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후행구성이 사용되어 구어와 후행구성 간의

연관성이 매우 밀접함이 드러났다. 또한 문어적 성격이 강해 선행구성이 선호된 실험논문에서는 실험 결과나 재료를 나열하는 목록일 경우에는 항상 후행구성이 쓰였지만 본문 내용을 기술할 때는 선행구성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됐다는 점도 문어와 선행구성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짐작케 한다.

둘째, 영어 원문에 나타나지 않은 수량단위의 선택 문제는 언어사용역 중 담화의 형식(tenor)과 장(field) 차원에서 논하였다. 영어 가산명사는 수량단위가 필요 없지만 한국어는 수량단위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번역자는 영어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해당 명사에 어울리는 ‘적절한’ 수량단위를 골라 표시해야 한다. 사람명사의 경우에는 담화의 형식, 즉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립적인 표현 ‘명’ 혹은 ‘인’, 높임 표현 ‘분’, 낮춤 표현 ‘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담화의 장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에 일상에서는 ‘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맥락에서는 ‘점’을 사용하여 수를 센다. 또한 경매 사이트에서는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건’으로 통일하여 수량을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문어와 구어의 대략적인 경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어텍스트 내에서도 텍스트 종류에 따라 선행/후행구성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고의 논의가 더욱 자연스럽게 텍스트다운 번역텍스트를 도출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담화의 형식과 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많은 자료가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범모 외. 2000.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 문체, 유형』. 서울: 대학사.
- 김영희. 1981. 「셈술말 옮기기」. 『배달말』 7:1, 33-60.
- \_\_\_\_\_. 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 우형식. 1998. 「국어 수량화 구성의 분포와 기능 분석」. 『담화와 인지』 5:2, 57-80.
- 채 완. 1982. 「국어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어순변화의 일례로서」. 『진단학보』

53-54, 155-170.

\_\_\_\_\_. 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19-34.

\_\_\_\_\_. 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167-180.

한효석. 2000.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Denny, J. 1976. What Are Noun Classifiers Good for? *CLS*, Papers from the Twelfth Regional Meeting. 122-132.

Gregory, M. and S. Carroll. 1978. *Language and Situation: Language Varieties and their Social Context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Halliday, M. et al. 1964. *The Linguistic Sciences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Hatim, B. and I.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New York: Longman.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iss, K. 1977/89. T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translated by A. Chesterman, in A. Chesterman (ed.) (1989), 105-15.

Snell-Hornby, M. 1988/1995. *Translation Studies-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

## English-to-Korean Translation on Numeral Expression

Chin, Silo · Kwak, Eun-joo  
(Sejong Univ. · Sejong Univ.)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use very different systems for expressing quantified structures. In English, only two structures exist. These two pre-structures (i.e. 'quantifier+N') dominate the enumeration process in the English language. In Korean, there are six structures of pre- and post-structures (i.e. 'N+quantifier'). The general structures are 'number+unit+(ui)+noun' (pre-structure) and 'noun+number+unit'(post-structure). While English countable nouns escape unit nouns, nearly all Korean nouns need ones. Hence, translators must choose between pre-structure and post-structure, and one appropriate numeral unit.

This study investigates:

(1) the relationship between a text type and its preference for quantified structures, and

(2) the elements affecting the degree of acceptability of the numeral units.

We have selected data from experimental articles, newspapers, TV news scripts, and novels. These show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a text type(mode of discourse) and its preferred quantified structure. They also give evidence that the field and the tenor of discourse affect th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numeral unit words.

▶ Key Words: quantified structure, pre-structure, post-structure, unit, mode, tenor, field

곽은주

세종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ejkwak@sejong.ac.kr

관심분야: 번역학, 의미론, 화용론

진실로

세종대학교 영문학과 시간강사

sunrise120@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09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